

부천세종병원

이명목 병원장, 부천·김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 위촉



▲부천·김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기총회에서 부천세종병원 이명목 병원장(사진 가운데)이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후 부천·김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정석 이사장(사진 가장 왼쪽),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차순길 지청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명목 부천세종병원 병원장이 법무부 산하 사단법인 부천·김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이미 부천세종병원은 부천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기도 하며 지난 3월에는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부천협의회와 부천시지역 청소년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이력이 있다.

인공신장실 리모델링, 환자 편의성·안정성 개선

부천세종병원(병원장 이명목)은 인공신장실의 음압 및 일반 병상 추가, 공간 분리 등 리모델링을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로운 인공신장실에는 음압 병상이 추가됐다. 코로나 19 등 호흡기 전염성 질환으로 인해 격리가 필요한 환자, 다제내성균(VRE/CRE)으로 인해 격리가 필요한 환자, 정서적 불안(치매 등)으로 인해 분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 병상도 기존 20병상에서 24병상으로 확대했다. 입원환자의 침대를 이동해 바로 입실할 수 있도록 추가 4병상은 침대가 없는 방식으로 자리를 만들었다. 특히 투석 치료 환자를 집중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병상마다 심전도 모니터 등 환자감시장치를 설치했다. 이와 맞물려 입원환자와 외래 환자의 구역도 분리했다. 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 특성상 중증 심혈관 입원환자 비중이 높는데, 투석 치료시 발생하는 각종 모니터링 알람 소리가 자칫 투석 중인 외래 환자의 불안감을 유도할 것에 대한 세심한 배려다.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로 운영에 들어간 부천세종병원 인공신장실 모습.

인천세종병원

김순옥 간호부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인천세종병원 김순옥 간호부원장이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인천세종병원은 최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93회 대한간호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김 부원장이 이같이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지난 1987년 간호사 면허 취득 이후 37년간 세종병원에 몸담은 베테랑 간호사다. 중환자실 간호사, 투석실 간호사, 응급 간호사, 간호교육 행정부장 등 다양한 간호 실무 및 간호인력 교육을 담당했다. 인천시 간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정부 의료정책 전파와 지역사회 의료 나눔, 봉사활동 등으로 의료인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했다. 특히 중증 환자 전담 간호인력 양성 교육 리더 역할, 유휴 간호사 교육으로 임상 복귀 도움 신속 대응 시범사업, PDA, 실시간 위치추적시스템(RTLS) 등 디지털 간호업무 환경 조성, 전 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정착, 지역 취약계층 의료 봉사 등에 앞장선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인천세종병원 김순옥 간호부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수상을 기념하여 사진촬영하고 있다.

김경희 심장이식센터장, 국제심폐이식학회지 편집위원 선정

인천세종병원(병원장 오병희)은 김경희 심장이식센터장(심장내과 과장)이 국제심폐이식학회지 편집위원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김센터장은 이미 작년에 국제심폐이식학회는 12년 만에 심장이식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해 참여하면서 “임상 현장에서 심장이식 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세종병원 김경희 심장이식센터장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치매환자 및 보호자 자조모임 행사 진행



1 '마카롱 만들기' 자조모임 행사안내 포스터. 2,3 환자 및 보호자가 함께 마카롱을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병원장 임성희)은 지난 3월 13일 치매환자 및 보호자 대상으로 자조모임 행사를 진행했다. 병원은 치매환자를 둔 보호자 또는 가족들을 초청하여 치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환자 및 가족이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자조모임 행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 환자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진행 ▲ 보호자 간 정보 공유 ▲ 정보 제공 ▲ 문화활동기

회 제공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한다. 13일 이날에는 5가정의 환자 및 보호자 총 13명이 자조모임에 참여하여 달콤한 디저트 '마카롱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보호자들은 환자와 따뜻하게 손을 잡고 얼굴을 보며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화목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총 4가지 맛(녹차, 라즈베리, 황치즈, 크림치즈 맛)의 마카롱 36개를 만들어 보호자들이 함께 나누며, 즐거운 추억을 남겼다.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학대예방활동' 실시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요양원장 김정숙)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이 학대와 차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노인학대 예방교육은 노인학대의 정의와 종류, 예방전략, 위험요인과 신호, 대응방법, 그리고 노인들의 권리와 자립성 증진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 진행하였다. 또한 노인학대 예방활동으로 '종사자 자가 체크리스트'를 진행하였다. 이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로서 “나 돌아보기”를 통해 돌봄의 태도와 마음자세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노인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김정숙원장은 “노인학대 예방교육은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종사자 자가체크리스트'는 앞으로도 매월 진행하여 직원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따뜻한 배려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요양원은 어떤 형태의 학대나 차별로부터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요양원 종사자들이 노인학대 예방교육에 참여중인 모습.

병원 이용 안내 [대표번호 032-713-7300] 진료시간 | 월~금 08:30~17:30
요양원 [상담 및 복지업무 032-713-7550]

